

# 일본의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의 지평과 역사

와타나베 나오키\*

## 〈차 례〉

1. 제도로서의 연구
2. 식민지 시대: 『모던일본』, 김소운, 장혁주
3. 해방 직후: 이은직, 허남기, 오림준, 츠카모토 이사오(塚本勲)
4. 1970년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계간 한국문예』, 한국유학과
5. 현대어학숙, 『계간 삼천리』, 한일작가회의
6. 일본 대학의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자들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의 역사를 살펴본다. 한국 근현대문학 지식 제도는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그렇게 지명한 제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연구의 영역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 저서들, 모임, 제도 등을 최대한 아우르며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의 역사를 검토한다.

[주제어] 한국문학 연구사, 문학 번역, 제국/식민지/남북분단과 문학

## 1. 제도로서의 연구

‘한국 근현대 문학연구’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런 지식의 제도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것

\* 일본 무사시대학 인문학부 교수

이 20세기 이후의 한국·조선문학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존재이며 자명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 시대인 1920년대에 작가 이광수는 스스로 한 때 적을 둔 경성제국대학에서 잡하게 된 ‘조선문학’의 텍스트가 『격몽요결』같은 한문으로 쓰여진 수신서나 처세서임을 지적하고 ‘조선문학’은 ‘조선어’, 즉 한글로 씌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조선문학의 관념」, 1929).<sup>1)</sup> 10년 정도 지나서 시인이자 평론가인 임화가 이광수의 이 ‘조선문학’에 대한 견해를 문제시하고 한문학도 포함한 그것을 ‘조선문학’이라고 한 것은 프롤레타리아문학 해체 후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동시대의 문학을 되돌아보고(「조선신문학사론서설」, 1935),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용언어에 구속되지 않는 낭만주의적인 문학관의 계보학을 구상한 결과였다(「개설 신문학사」, 1939.9~1941.4, 「신문학사의 방법」, 1940).

식민지시대에 있어서 동시대 조선문학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는, 해방 이후 남쪽에서는 많은 대학에 ‘국어국문학과’가 설치되어 거기서 연구·교육됨으로써 ‘지=읽’이 조직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북쪽에서는 전·근대 문학에 대해서는 남쪽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조선어문학부’ 등에서 교육·연구되었는데, 20세기의 문학의 역사나 계보에 대해서는 ‘항일혁명문학’의 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역사적인 규명이 이루어졌고, 또 70년대 이후의 창작에서는 개인명을 집필자로 하는 작품이 아니라 집단 창작을 위주로 하는 기조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문학사 서술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서로의 문학관을 겨루는 것보다 몇 년에 한 번 씩 국가사업으로서 집단으로 창작되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남쪽의 경우도 북쪽의 경우에도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 하에서 각각의 자국문학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생

1) 이광수가 여기서 한글이나 한문이나라는 사용언어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 ‘문학’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다. 그는 그것보다도 전에 「문학이란 하오」(1916)에서 문학을 소설이나 시로 이루어진 창작물이라고 했는데, 1920년대 중반에 스스로가 목격한 경성제대의 조선문학연구에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 유학 시절에 우선 1910년대에 와세다대 등에서 독창성을 중시한 창작물로 구성된 ‘문학’(literature)을 배운 춘원은, 1920년대에 제국의 학지(學知)의 제도인 경성제대에서 또 하나의 ‘문학’, 즉 문·사·철 등의 ‘씌어진 것’(letters)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취하는 일본 고등교육의 일부인 ‘(인)문학부’의 ‘문학’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동양학의 일부를 체험한 것이기도 했다.

산된 것은 마찬가지다. 한편 일본의(혹은 북미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조선의 근현대문학 연구기반이 제도적으로 재생산된 것은 아직 전례가 없다. 그것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학이나 조선학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보다 큰 시점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한국·조선 문학의 연구나 교육 혹은 소개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제도적인 범주를 넘은 지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20세기에서 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한다.

## 2. 식민지 시대 : 『모던일본』, 김소운, 장혁주

20세기 전반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 시기에 조선어로 창작된 동시대 문학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간행돼서 일본 독자를 갖거나 연구 대상이 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도쿄(문단)나 경성(문단)에서 조선문학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은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어를 구사하는 조선인이 발신한 것이었다. (제국과 식민지에서 언어 사용의 비대칭성은 늘 지적되는 바인데, 그것은 이러한 장면에서도 크게 작용된다<sup>2)</sup>). 일례를 들자면 1930년대에 일본에서 조선 불미 있었는데, 출판계에서도 그 일환으로 조선문학 특집으로 문학 작품이 일본에 번역되어 잡지에 게재된 일이 많이 있었다.<sup>3)</sup> 모던일본사에서 나온 『모던일본』

2)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고 불공평한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당연한 결과로서 식민지 조선사회에서(혹은 제국일본이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어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조선인 중에는 일본을 잘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일본인은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른다.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를 봐도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들은 일본인 거리에도 나섰고 경성에서는 ‘혼브라’ (‘긴부라’ (긴자를 흔들거린다)에서 온 당시의 유행어. 혼마치를 흔들거리는 일)을 즐겼는데,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조선인 거리를 나서는 일은 없었고, 거의 모두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일본인 거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처럼 언어 사용의 비대칭성은 인간의 인식이나 심상지리, 행동 범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단적으로 말해 지배하는 측은 지배받는 측을 모르고(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내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배받는 측이 지배하는 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지배-피지배를 둘러싼 언어 사용의 역학 관계와도 관계가 있다.

은 1939년 11월과 1940년 8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판을 내 놓았다. 이 출판사는 아쿠타가와상 주간사인 文藝春秋社の 자회사로, 작가이자 사장이었던 기쿠치 칸(菊池寛)의 훈도를 받은 마해송이 경영하고 있던 출판사였다. 또 이 모던일본사가 주관한 조선예술상은 제 1회 문학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일본의 아쿠타가와상의 심사위원이 선출됐고 문학부문은 이광수의 「무명」(김사량이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수상됐다. (제 2회부터 심사는 조선문인협회가 맞았다.) 모던일본사에서는 수상자인 이광수의 작품집(조선어로 창작된 것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세 번에 걸쳐 간행했는데(『가실』(단편집) 1940, 『유정』 1940, 『사랑』 1940~41: 김일선 등 번역), 제 2회 조선예술상 문학부문의 수상자인 이태준의 『복덕방』(단편집)도 간행했다. (정인택 역, 1941) 또 이것보다 조금 전에는 종합잡지인 『개조』에서도 작가 장혁주가 일본어로 작품을 써서 현상 공모에서 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개조사의 사장 야마모토 지즈히코(山本實彦)는 조선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지원 등을 하고 있던 연장선상에서 조선인 필자를 적극적으로 잡지『개조』에 기고하게 하거나 개조사에서 서적 간행을 장려했다. 유명한 사례로서는 (문학자는 아니지만)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도 개조사에서 간행된 것이다.<sup>4)</sup> 백남운은 일본 유학 시절에 도쿄상대(현재 히토츠바시대학)를 다녔다.

또 식민지 시대의 조선어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독자를 얻은 유명한 사례로 김소운의 이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乳色の雲』(河出書房, 1940)으로 나온 번역시집은 작가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서문으로도 유명한데(“彼らが正に廢滅せんとする言葉を以てその民の最後の歌をうたひ上げた” = 그들이 이제 없어져 가는 말로써 그 백성들의 마지막 노래를 읊었다), 이 시집은 그 후에 『朝鮮詩集』 前期·中期(興風館, 1943)로서 재간되어 또 전후의 일본에서도 『朝鮮詩集』(創元社, 1953)로서 간행되어 이 創元社판을 저본으로 한 것이 1954년에 岩波文庫에서도 간행되어 현재도 판을 거듭하고 있다.

3) 이후에 한국·조선문학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의 서지 및 경위에 대해서는 梶井陟, 「朝鮮文学翻訳の足跡」, 『季刊三千里』, 1980.5~1983.5를 참조했다.

4) 高榮蘭, 「出版帝国の「戦争」:一九三〇年前後の改造社と山本実彦『満・鮮』から」, 『文学』 11(2), 岩波書店, 2010, 120~137쪽.

번역시집의 각 판에서 수록작품이 조금씩 다른 것도 흥미로운데(전후의 創元社판에서는 이전 판에 있었던 임화나 오장환, 김용제 작품이 대폭 삭제되어 있다. 아마도 해방후 남북한에서 이 시인들의 정치적 위치를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소운의 이 번역시집에서 일본의 독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유창한 일본어다. 일본어로 번역된 시는 문체도 그렇지만 수많은 일본어의 고어가 사용되어 있었다. (과잉할 정도의 ‘일본어화’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몇 번 논의가 있었는데, 재일조선인 시인의 김시중은 김소운이 번역한 이들 작품을 다시 스스로의 일본어로 번역해서 金時鐘 訳, 『再訳朝鮮詩集』(岩波書店, 2007)으로 간행해서 김소운의 번역 작업에 대해서 검증한 적도 있다. 김소운의 번역시집의 최종판도 岩波文庫에서 나와 있으므로 岩波書店은 조선시의 같은 내용의 앤솔로지를 두 명의 다른 번역가의 번역 작업으로 출판한 셈이 된다.)

그 외에도 申建 訳編, 『朝鮮小説代表集』(教材社, 1940)나 秋田雨雀·村山知義·張赫宙·俞鎮午 編, 『朝鮮文學選集』(1~3, 赤塚書房, 1940), 張赫宙, 『春香伝』(新潮社, 1938, 新潮文庫, 1941) 등이 나왔다. 장혁주는 일본어로 자신의 소설을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맡았다. 『春香伝』은 村山知義 등 新協劇團에 의한 일본·조선 순회공연의 대본이 된 것인데, 일본에서 호평을 받아서 조선에서도 공연했는데 현지 평론가의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장혁주는 그 후 조선을 떠나 埼玉 高麗神社 근처로 거주지를 옮겼고 만주 등 재외조선인(의 익찬=전쟁 참여)에 대해 나서서 쓰는 작가가 됐다. 제 1회 대동아문학자대회(도쿄, 1942년 11월)에서도 그는 바로 조선문단과 일본문단을 ‘가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았다.

### 3. 해방 직후: 이은직, 허남기, 오림준, 츠카모토 이사오(塚本勲)

여기까지 식민지시대의 조선문학이 어떻게 일본에 소개되었는지, 그 대표

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왔다.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그 텍스트에 대한 ‘연구’다운 것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태는 조금 더 계속된다. 1945년의 해방, 48년의 남북한 정부 수립, 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 담론은 역시 일본어를 구사하는 조선인들의 발신으로 이루어졌다.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1945~49)에 출입한 조선인들의 기관지적인 역할을 다한 잡지 『民主朝鮮』(1946~50)과 그 조선인들이 역시 출입한 일본공산당 계열의 잡지 『新日本文学』이나 『人民文学』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상황이 전해졌는데, 문학 작품이 단편적으로 일본어로 번역-소개되기도 했다. (임화의 「너 어느곳에 있느냐」(1951)도 허남기 번역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人民文学』에서 번역되기도 했다.) 다만 그 후에 조련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한 것도 있어서 그 후에 잠시 동안 일본에서 조선과 관련된 논의는 북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데는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한국의 사정이 다시 조금씩 일본에 전해지게 되는 것은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한국·조선문학 소설과 시집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李箕永(金達壽·朴元俊 共訳), 『蘇える大地』, ナウカ社, 1951 (3부작 『땅』 제 1부)

許南麒 訳, 『朝鮮はいま戦いのさ中にある』, 三一書房, 1952 (17명 27편, 임화의

시도 수록)

趙基天(許南麒 訳), 『長篇叙事詩·白頭山』, ハト書房, 1952

韓雪野(李殷直 訳), 『大同江』, 東方社, 1955

李泰俊(鄭人澤 訳), 『福德房』, 東方社, 1955 (1941년 모던일본사판의 복각. 金達

壽 해설)

韓雪野(李殷直 訳), 『歴史』 上·下, 朝鮮文化社, 1960

李箕永(李殷直 訳), 『故郷』 上·下, 朝鮮文化社, 1960

韓雪野(李殷直 訳), 『黄昏』 上·下, 朝鮮文化社, 1960

李箕永(李殷直 訳), 『豆満江』 1~7, 朝鮮文化社, 1960

イ・ユンボギ(李潤福) (塚本勲 訳), 『ユンボギの日記』 太平出版社, 1965 (이윤복,

##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4)의 번역

黄健(安宇植 訳), 『ケマ高原』上・下, 新日本出版社, 1965

呉林俊 訳, 『アリランの歌ごえ: 現代南朝鮮詩選』新興書房, 1966 (43 편)

尹世重(大村益夫 訳), 『赤い信号弾』新日本出版社, 1967

소설에서는 해방후 북한문단의 중심에 있던 이기영과 한설야의 작품이 많고 번역자로서는 이은직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서는 이 작품들의 번역자에 대해 조금 살펴보기로 한다. 이은직(1917~2016)은 전라도 출생으로 1933년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대학 예술과를 졸업하는데, 그 시기에 단편 「ながれ」(『芸術科』 1939년 11월호)로 1939년 하반기 제 10회 아쿠타가와상의 예선 후보가 된다. (이회는 김사량의 「빛 속으로」도 최종 후보가 되었다.) 해방후에는 통신사 기자와 가나가와대 강사를 했는데 1960년부터 조선장학회 이사를 맡았다. 『新編春香伝』(1948)이나 장편 『濁流』 1~3(1967~68) 외에 『朝鮮名将伝』(1967), 『朝鮮名人伝』(1989), 자서전 『朝鮮の夜明けを求めて』 1~5(1997)나 『「在日」民族教育の夜明け』(2002), 『「在日」民族教育・苦難の道』(2003) 등의 교육론도 있다.<sup>5)</sup> 이 이은직이 이기영이나 한설야의 장편 번역을 맡은 것은 조총련 계열 통신사 기자를 하고 있던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시에 번역에서는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도 잡지에 번역·게재된 것도 압도적으로 허남기(1918~1988)의 번역물이 많다. 허남기는 1918년 부산 구포에서 태어나 부산제2상업학교를 졸업 후에 정치운동 때문에 검거·수감됐다. 석방 후인 193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대학 예술과에서 영화학을 전공, 그 후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해방후인 1945년 10월에는 재빨리 재일본조선인연맹 문화부에 소속해서 조선어 교과서를 편찬했고, 1946년에는 민중영화사에서 「조련뉴스」 제작에 종사해서 그 해 7월에는 『民主朝鮮』 창간에 참가했고, 1949년에는 이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1956년에 조선대학교 창립과 함께 강사가 돼서 다음해에는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정회원,

5) 조은애, 「북한에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출판과 개작에 관한 연구: 김달수와 이은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no. 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959년에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위원장을 역임했고, 1975년 이후 요양으로 몇 번 평양을 방문해서 중·장기로 체류했고 1988년에 세상을 떠났다. 위의 번역 이외에 『朝鮮詩集』(1955)이나 『現代朝鮮詩選』(1960)와 같은 시 번역도 있고 또 스스로도 『火繩銃のうた』(1951 / 1988년에 한국 동광출판사에서 한국어로 번역·간행됐다.)나 『朝鮮冬物語』(1952), 『巨濟島』(1952)와 같은 시집을 일본어로 간행했다. 그리고 그가 번역해서 岩波文庫에 들어간 『春香伝』의 번역(1959)은 현재까지 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번역이 현재도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春香伝』의 표준적인 텍스트가 되어 있다.)<sup>6)</sup>

오류준(1926~73)은 시인·화가·평론가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19세 때 육군에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해방후에는 조선학교 교원을 거쳐 그림과 시 창작에 전념했는데, 48세 때 심근경색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번역자라기보다 『記録なき囚人』(1969)이나 『朝鮮人のなかの〈天皇〉』(1972) 등, 조선 출신 병사로서 중군한 전시 경험을 많은 에세이로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김달수에 대해서 여기서는 해방 직후 『民主朝鮮』편집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만 지적한다. 그리고 박원순은 일본에서 도시사대학 졸업 후, 출판사 三一書房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고, 조선 교토 본부 결성과 『大衆新聞』 발간에 참가했고 1948년에는 해방신문사 근무를 위해 도쿄로 상경, 조선 해산 후에 해방신문사 편집국장, 가나가와현 조선 중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sup>7)</sup>

이 시기에 와서 드디어 츠카모토나 오무라와 같은 일본인 번역자, 즉 외국어로서 한국·조선어를 배우고 텍스트를 스스로 선택해서 번역하는 번역자가 나왔다. 츠카모토 이사오(塚本勲, 1934~)는 오사카 출생으로 교토대 대학원 수료 후, 1963년에 설치된 大阪外国語大学 朝鮮語科의 교원이 되어 2000년에 퇴직할 때까지 교수로 지냈다.<sup>8)</sup> 『ユンボギの日記』에 대해 츠카모토는

6) 孫志遠, 『鶏は鳴かすにはいられない: 許南麒物語』, 朝鮮青年社, 1993.

7) 関東暉, 「在日朝鮮人作家・金達寿と「解放」: 日本語雑誌『民主朝鮮』を中心に」, 『アジア地域文化研究』 11,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養学部アジア地域文化研究会, 2015. 3.

8) 전후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1950년에 天理大学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된 것이 처음인데 大阪外大의 이 학과 설치하는 일본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되고 国공립대학에서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大阪



한국의 독재와 빈곤에 대해 알기 위해 번역했다고 회고한 바가 있다. 원작은 한국에서도 1965년에 김수영이 영화로 제작했는데 일본에서도 츠카모토의 이 번역을 읽은 오오시마 나기사(大島渚, 1932~2013)가 역시 1965년에 스틸 사진만의 영상 작품을 제작해서 발표했다. (다만 내용적으로 원작과 약간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츠카모토는 1986년에 『朝鮮語大辭典』(角川書店)을 간행하는데, 이 사전의 예문에도 『ユンボギの日記』에서 뽑은 것이 많다. 『ユンボギの日記』 번역 기타로 츠카모토가 입수한 자료는 大阪府立中央図書館에 기증됐다. 또 이 1960년대에 大村益夫가 북한(실은 충청도 논산 태생으로 학교는 간도 대성중학을 중퇴했는데)의 소설가 윤세중의 작품을, 安宇植이 만주 간도로부터 해방후에 북한에 가서 활약한 황건의 소설을 각각 번역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번역의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절 이후에 언급기로 한다.

#### 4. 1970년대 :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계간 한국문예』, 한국유학과

1960년대까지는 식민지 시대의 작가라 하더라도 이기영이나 한설야처럼 당시 북한 문단에서 활약하는 작가이거나 해방후 북한에서 작품을 발표한 작가의 작품이 중심으로 번역·소개되어 왔는데, 1970년대에 들어가면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로 사람이나 정보의 왕래가 조금씩 늘어나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나 식민지 시대의 작가라 하더라도 꼭 북한에 건너가거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작가가 아닌 문화자의 작품들이 번역·소개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인으로(혹은 재일조선인이라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한국·조선문학을 번역하고 그 중에서 그 연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

外大는 2007년에 大阪大学 外国語学部가 되었다.) 덧붙여서 일본의 국공립대학에서 또 하나 외국어학부가 있는 東京外国語大学에 조선어과가 설치된 것은 1977년의 일이다. (이 학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신인 고등상업학교 부속 외국어학교에 1897년에 한어과가 설치된 적이 있는데,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학교는 폐지되었다.)

시작했다.

1970년에 생긴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는 그런 일본인들의 그룹이다. 회보로서 『朝鮮文學：紹介と研究』를 12호까지 냈고(1970.12~1973.8), 거기서 번역·소개된 단편 소설을 모아서 朝鮮文學の會, 『現代朝鮮文學選集』 I·II(創土社, 1973~74)를 간행했다. 주로 해방 직후부터 60년대까지 한국 작가의 단편이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모임의 중심적인 멤버였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에 따르면 岩波書店의 잡지 『文學』이 1970년 11월호에서 조선문학 특집을 냈는데, 거기에 기고해서 원고료가 들어와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선문학 관계의 잡지를 만들기로 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sup>9)</sup> 여기서 오무라의 생애에 대해 조금 살펴볼까 한다.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1933~2023)는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그 후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쳐 1964년부터 와세다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교수가 되어 2002년 정년퇴임했고 그 후 같은 대학 명예교수였다. 대학원에서는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영향으로부터 중국 문학, 특히 청조 말의 사회 소설을 연구했는데, 중국의 양계초가 번역한 東海散士, 『佳人之奇遇』의 중국어 번역에서 조선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발견해서 조선인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1958년 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에서 이진우(李珍宇)를 만나서 감옥에 면회를 다니면서 그 후 아내가 되는 아키코를 만났다. 1961년에는 일본조선연구소에서 조선어 강사를 맡았는데 그때부터 조선문학 연구도 시작했고, 처음에는 북한 문학연구의 영향 하에서 임화와 윤세중, 박세영, 김일성 문예론이나 식민지 시대의 최서해와 조명희 등 초기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번역·연구했다.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는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과도 교류를 시작해서 친일문학 연구의 임종국이나 시인 김용제, 서울대 교수

9) 이 ‘조선문학의 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많은 연구가 있다.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No.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no.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김윤식과 교류해서 그 성과를 金允植(大村益夫訳), 『傷痕と克服: 韓国の文学者と日本』(朝日新聞社, 1975 / 『한일문학의 관련양상』(1974)의 초역), 林鍾國(大村益夫訳), 『親日文学論』(高麗書林, 1976 / 원저는 평화출판사, 1966),<sup>10)</sup> 大村益夫, 『愛する大陸よ: 詩人金竜濟研究』(大和書房, 1992)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김학철을 비롯해 중국 조선족 문학의 번역·연구하는데 힘을 기울였고, 연변 체제 중에는 시인 윤동주의 묘소를 발견, 시인의 자필 원고를 공편으로 간행했다(1999). 제주도 문학의 번역·소개도 있다. 주요 저서로서 『中国朝鮮族文学の歴史と展開』 『朝鮮近代文学と日本』(둘 다 綠蔭書房, 2003)와 수많은 작품 번역 외에, 조선 문학 관련 각종 문헌목록이나 일본어 작품 자료집도 편찬했다. 한국에서도 전 6권의 저작집이 번역·간행되었다(소명출판, 2016~18).<sup>11)</sup> 장서의 대부분은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조선문학의 회’에서 윤독하는 텍스트 선정과 실제 강독 작업에서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윤학준(尹學準, 1933~2003)이다. 윤학준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1953년 일본에 밀항을 시도하고 규슈 가라츠의 경비구난소에서 유치됐다. 그 후 거기서 탈주하고 일본 국내를 전전해서 1955년 메이지대학 제2법학부(야간)에 입학하는데,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호세이대학 제2문학부(야간)에 편입해서 1958년에 졸업했다. 그 후 민족계 신문사를 거쳐 호세이대, 도쿄도립대, 와세다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맡으면서 각종 잡지에 기고했다. 또한 1976년에는 도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수·수감되는데 보석금으로 석방돼서 벌금을 지불해서 특별재류자격을 얻었다. 그 후 메지로대나 호세이대 교수를 역임했다. 저작으로는 한국문화론적인 에세

10) 이 책은 그 후에 교주본이 2013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되었다. 교주자인 이진제가 400여 개의 각주로 원본의 서지 정보 등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11) 오무라 마스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간행된 『오무라 마스오 문학앨범』(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6, 소명출판, 2018) 권말에 광형덕이 오무라 마스오 본인에게 인터뷰한 기록이 참고가 되는 것 외에도 장문석 교수의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Vol.14 No.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장문석, 「김학철과 윤동주: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동악어문학』 Vol.88, 동악어문학회, 2022; 장문석, 「조선문학을 권함: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소명출판, 2016~2018)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한국학연구』 No.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이가 많은 가운데 『時調：朝鮮の詩心』(創樹社, 1978 / 후에 『朝鮮の詩ごころ』로서 講談社 学芸文庫(1992)에 수록됐다.)은 지금도 일본에서 한국 시조 입문서로 알려져 있다. 장서의 대부분은 호세이대학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또 하나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야마다 아키라山田明 / 1926~2010)는 아이치현 출신인데 어린 시절에 식민지 조선(경성)에서 지냈다. 1952년 도쿄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해서 『朝日ジャーナル』기자로 활동했고, 60년대에는 여러 번 취재로 서울에서 체재하면서 1970년대에는 신문사를 휴직해서 한국에 어학 유학을 했다. 79년에 신문사를 퇴사해서 81년부터 타쿠쇼쿠(拓殖)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로 지냈다. 『ソウル実感録』(北洋社, 1975)은 일본인에 의한 유학기로 잘 읽혀졌고, 또한 『朝鮮断想』(草風館, 1984)은 한일의 내셔널리즘론인데 그 후 타이틀을 바꿔서 아사히신문사와 이와나미서점에서 문고판으로 재간행되었다. 또한 만년에는 『現代コリア』의 집필자로 북한 민주화의 논진을 폈다. 한국문학의 업적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崔仁勳(田中明 訳), 『広場』(泰流社, 1978 / 소설 3권의 일본어 번역)<sup>12)</sup>을 번역한 외에 尹学準, 『時調：朝鮮の詩心』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역한 시조의 일본어 번역 부분을 모두 담당했고 申在孝, 『パンソリ：春香歌・沈晴歌他』(平凡社 東洋文庫, 1982)에서도 강한영과 함께 일본어 번역을 담당하면서 주석도 달았다. 일본어의 고어가 절묘하게 섞인 다나카의 고전 번역은 명역이다. 또 한국의 국문학자 김윤식의 초기 에세이에 ‘일본의 지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다나카 아키라다.

또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시기 일본인의 한국문학 번역이 많이 진행된 잡지로 『계간 한국문예』가 있다. 이 잡지는 1975년 10월부터 수년간 서울의 소설문예사라는 데서 일본어로 간행되었다. 발행소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얼마나 독자를 얻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작품의 번역은 거의 당시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지내던 일본인들이 맡아서 했다. 편집 겸 발행인은 김옥숙(金玉淑), 주간은 한국 작가의 유주현(柳周鉉)이고 편집위원에 작

12) 이 작품은 현재 일본어로는 吉川風 訳(クオン, 2019)으로 개작 최종판의 번역을 읽을 수 있다.

가인 후로야마 고마오(古山高麗雄, 1920~2002)의 이름이 있다. 일제시대에 신의주 출생으로 전쟁 중에는 병역 경험도 있는 후로야마가 얼마나 한국어를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후에 간행된 古山高麗雄 編, 『韓国現代文學 13人集』(新潮社, 1981)는 이 『韓國文藝』에서 번역된 것을 후로야마가 감역 해서 낸 것이다. (이 시기에 이 선집처럼 일본의 작가가 최종 원고를 감역해서 내는 한국문학의 작품 번역이 몇 가지 있었다. 中上健次(安宇植 訳), 『韓國現代短編小説』(新潮社, 1985)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일국교정상화 후인 60년대 후반이나 1970년대에 한국에 유학해서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사람들도 한국·조선문학연구 분야에서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에구사 도시카즈(三枝壽勝, 1941~)는 70년대 후반에 도쿄외대에 조선어과가 창설되면서 문학 담당 교수로 부임했고 이후 2003년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국·조선문학의 교육·연구에 종사했다. 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유학해서 경희대 대학원에서 작가이자 교수였던 황순원의 지도로 제출한 석사논문 「상황과 문학자의 자세: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경우」(1976)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당시 한국의 문예지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에도 그 초록이 게재되었다. 사에구사는 그 이전에 교토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양자역학연습』이라는 지도교수와의 공저도 있었던 물리학도였는데, 그 저서의 해적판이 서울에서 나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로 나간 것이 한국과의 첫 인연이었다고 한다. 이광수나 이태준, 김동인, 이상 등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에 관한 연구 외에 번역서로는 高銀, 『華嚴經』(1995)이나 蔡萬植, 『濁流』(1999) 등도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도쿄외대의 대학원생과 졸업생 등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문학연구회라는 월례발표회를 주관하면서 젊은 연구자들을 지도했다.

초쇼키치(長璋吉, 1941~88)도 사에구사와 함께 도쿄외대에 조선어과가 창설됐을 때 부임했고 한국·조선문학 교육·연구에 종사했다. 사에구사보다 일찍 국교정상화 직후인 60년대 후반에 어학유학을 몇 년 했을 뿐이었는데, 귀국 후 동인지에 연재해서 그 후에 단행본으로 묶은 『私の朝鮮語小辭典: ソウル遊学記』(北洋社, 1973 / 후에 河出書房(文庫), 1985)가 많은 독자를

얻었다. 이 책은 한국어에 관한 에세이인데, 서울의 바람을 느끼면서 현지 사람들의 소박함과 사람들의 생활 풍경을 그린 에세이는, 당시 정치 관계 담론 일변도였던 일본에서의 한국 담론에 대해서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다. 또한 그가 쓴 한국문학 에세이집인 『韓國小説を読む』(草思社, 1977)에서 최인훈이나 이청준, 그 외 한국 현대문학의 작가나 작품의 이름을 기억한 일본인 독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번역으로서는 金宇鍾, 『韓國現代小説史』(龍溪書舍, 1975), 『金東仁短篇集』(高麗書林, 1975), 李清俊, 『書かれざる自叙伝』(泰流社, 1978) 정도였고 초씨 본인도 아쉽게도 48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했는데, 동시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게 한국인이나 한국문학의 매력을 전한 공헌도는 정말로 높은 필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유고를 묶은 『朝鮮・言葉・人間』(河出書房新社, 1989)에서 짧으면서도 인상깊은 추도문을 기고한 것이 앞의 다나카 아키라였다. (다나카가 옮긴 『광장』(최인훈)과 초가 번역한 『쓰여지 않은 자서전』(이청준)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시리즈였다.)

사에구사와 초, 그리고 오무라로 세 사람이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일본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 문학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로 활약했다.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번역한 大村益夫・三枝壽勝・長璋吉, 『朝鮮短篇小説選』上・下(岩波書店(文庫), 1984 / 식민지 시대의 작가의 단편집), 大村益夫・三枝壽勝・長璋吉, 『韓國短篇小説選』(岩波書店, 1988 / 해방 후부터 70년대까지 한국 작가의 단편집)은 일본에서 많은 독자를 얻었다. 또한 사에구사는 스스로가 주관하는 조선문학연구회의 멤버들과 함께 이 속편인 三枝壽勝ほか訳, 『現代韓国短篇選』上・下(岩波書店, 2002 / 80년대 이후의 한국 작가의 단편집)을 같은 이와나미서점에서 간행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조차도 한국·조선학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있었던 것은 국립의 도쿄 외대와 오사카외대(현재 오사카대 외국어학부)와 가지이 와타루(梶井陟)가<sup>13)</sup> 있었

13) 가지이 와타루(梶井陟, 1927-88)는 조선어연구자. 1949년에 도쿄부립 제일사범학교 분과(생물과)를 졸업했고, 도쿄도의 구립중학교에 근무한 후, 1950년부터 5년간 도쿄도립조선중학교에 근무했다. 그 후에 다시 구립중학교에서 근무해서 1978년부터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어·조선문학 코스 주임교수가 되었다. 1950년대라는 초기부터 일본에서 조선어 교과서 편찬에 종사해서 『朝鮮語入門』(日朝協會, 1952), 『新しい朝鮮語の学習』(宋枝학과 공저, 学友書店, 1954), 『わかる朝鮮語』

던 도야마대, 그리고 사립대에서는 천리대로 네 군데 뿐이라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도쿄대나 교토대, 규슈대 등에도 한국학 연구자는 있었는데, 당시 아직 독립된 학과를 가진 교수들은 아니었다. 오무라 마스오도 와세다대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조선문화연구회라는 모임을 반 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해서 한국문학·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의 기회를 가졌다.

## 5. 현대어학숙, 『계간 삼천리』, 한일작가회의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 일본에서 한국·조선어의 학습자는 조금씩 늘어났는데, 배울 수 있는 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대학에서도 제2외국어가 아니라 자유선택의 외국어로서 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공 수업이 개설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그래서 한국·조선 관계의 외국어가 아닌 전공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기특한 학생은 앞에서 말한 네 군데 대학에서 개설된 수업을 도강으로 청강했다.) 도쿄 시내에도 한국어 학습기관은 대부분 초급반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한국어 학교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기 이전에 적어도 90년대 정도까지 도쿄에 있는 각 학교의 초급반을 마친 학습자들이 중급 이상의 수준을 배우려고 할 때 선택한 곳이 요요기(代々木)에 있었던 ‘현대어학숙(現代語學塾)’이라는 곳이었다. 이것은 1968년 2월에 일어난 이른바 ‘김희로 사건’으로 피고를 지원하는 공판대책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위원회에는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조선사), 스즈키 미치히코(鈴木道彦, 프랑스로문학), 김달수(작가), 노마 히로시(野間宏, 작가), 히다가

---

(三省堂, 1971 / 第2版 1982) 등을 내는 것과 동시에 『朝鮮語を考ふる』(龍溪書舎, 1980 / 改訂版 1984)와 같이 일본에서 조선어의 위상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거나 또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朝鮮人学校の日本人教師』(日本朝鮮研究所, 1966 / 亜紀書房, 1974 / 岩波書店(現代文庫), 2014)와 같은 저서나 李重煥, 『挾里志: 朝鮮八域誌』(成甲書房, 1983) 같은 번역서도 있다. 또한 한국·조선 관계 서적·기사의 수집가로서도 유명하며, 그 장서는 도야마대도서관에 기증돼서 『富山大学附属図書館蔵梶井文庫目録』(1994)과 같은 목록도 만들어졌다.

로쿠로(日高六郎, 사회학)가 모였는데, 피고에게 조선어 학습 교재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모인 멤버들도 서로 조선어를 학습하게 되면서 커진 단체이다. 강사로는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와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초 쇼키치(長璋吉), 타카야나기 도시오(高柳俊男), 타카시마 요시로(高島淑郎) 등 당시 조선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학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1989년 1월에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본 대학에도 한국인 유학생이 급증했고, 이 현대어학숙에서도 권혁태나 서민교 등, 당시 도쿄의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이 회화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평일 밤에 열리는 어학반 이외에 몇 달에 한 번 강사를 모시고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당시 수업에는 늘 어느 정도 재일조선인 학생도 수강자로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학반에서도 인권문제나 사회문제에 민감한 수강자가 많았다. 여기를 거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데 키노시타 타카오(木下隆男)는 도립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초 쇼키치의 문학강독반에서 오랫동안 다녔었고, 퇴직 후에 한국의 숭실대 대학원에 유학해서 윤치호 연구로 석사 논문을 쓴 뒤에 귀국해서 『評伝 尹致昊 : 『親日』キリスト者による朝鮮近代60年の日記』(明石書店, 2017)를 간행했고, 본인의 라이프워크인 윤치호 일기의 일본어 번역도 平凡社(東洋文庫)에서 2022년부터 간행 중이다. 또한 마키세 아시코(牧瀬暁子)는 앞의 '조선문학의 회'의 회원이기도 했는데, 이 현대어학숙의 초 쇼키치 클래스에 참가해서 오랫동안 근무한 도쿄도청을 퇴직 후에 한국의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수학했다. 일본 귀국 후에 오래 작업했던 박태원 『천변 풍경』의 번역(이 작품은 초 쇼키치가 만년에 걸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던 작품이었다)을 작품사에서 간행했고(2005), 또한 2021년 9월 막을 내리게 된 현대어학숙에서 마지막까지 문학강독 클래스 강사를 맡았다. 사토 히사시(佐藤久)는 러시아서 수입상인 나우카에서 영업직을 맡으면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와 다카사키 소시(高崎宗司) 등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에 찬동해서 지원했다. 현대어학숙에는 사무국장으로서 운영에도 관여했는데, 번역자로서도 黄皙暎, 『武器の影』 上・下(高崎宗司와 공역 / 岩波書店, 1989)이나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 教科書・慰安婦・靖国・独島』



(平凡社, 2006 / 平凡社ライブラリー, 2011) 등을 번역했다. 현대어학숙은 수강생 감소 등으로 인해서 2021년 9월에 막을 내렸는데, 보관되고 있던 공판 대책위원회 시절의 자료는 와코(和光)대학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이 도서관에는 잡지 『한양』를 비롯해서 한양사의 출판물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다시 1970년대에 시점을 돌린다면, 이 시기의 한국·조선학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없거나 분야로서 정착될 수 없었던 것이 민간의 아카데미 저널리즘으로 발전될 때도 있었다. 1975년에 창간되어 1987년까지 50호를 낸 『季刊三千里』(三千里社)와, 그 후계지로 25호까지 낸 『季刊靑丘』(靑丘文化社, 1989~96)가 바로 그런 잡지였다. 『계간 삼천리』의 편집 동인은 김달수, 이진희, 강재언 등 재일조선인 학자나 문화인들이었는데, 집필자는 일본인이나 재일조선인의 연구자(대학교수나 재야 연구자를 불문하고)였고, 분야도 역사에서 인권운동까지 역사도 고대사에서 중세사나 근세사, 식민지시대사, 현대사, 재일조선인과 코리아디아스포라 등 실로 다양했다. 『계간 삼천리』의 창간호(1975년 봄호)는 김지하 특집으로 시인의 근황을 전하는 기사가 많이 게재됐다. 이 잡지 뿐만 아니라 김지하 작품의 번역이 7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많이 간행된 것은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고 그 번역자도 많이 있었는데,<sup>14)</sup> 최초의 번역시집 『長い暗闇の彼方に』(中央公論社, 1971)의 번역자는 시부야 센타로(渋谷仙太郎)라는 일본인이었다. 이 사람은 그 밖에도 ‘이데 구쥬(井出愚樹)’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던 저널리스트인 하기와라 료(萩原遼, 1937~2017)였다. 하기와라는 고치현 출신으로 젊은 시기부터 재일조선인들과 친교가 있어서 조선어에도 친숙해졌고, 1963년에 오사카의 대 조선어과에 1기 졸업생으로 입학해서 졸업 후에 일본 공산당 기관지 『赤旗』기자가 되었고, 1972년 5월부터 1년 정도 평양 특파원으로 평양에 체재했는데, 귀환 운동으로 북한에 귀국한 재일조선인 친구를 북한에서 찾아 다닌 것이 발각되어서 간첩 혐의로 1973년 4월에 일본으로

14)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Vol.58, 상허학회, 2020;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Vol.14 No.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등.

강제송환되었다. 그 후 프리랜서로서 재일조선인의 귀환운동에 대해 취재했고 그 과정에서 조총련이 다한 역할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어서 만년에는 반-총련, 반-민족학교, 반-북한의 입장을 선명하게 한 언론활동을 했다.

『계간 삼천리』와 『계간 청구』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이들 잡지에서 한국·조선 문학 관련 기사가 게재될 일은 별로 많지 않았고, 오후라 마스오가 가끔 시를 한일 대역으로 게재하거나, 한국의 문학평론가로 창작과비평사의 주간이었던 백낙청의 논문이 번역·게재될 정도였다. 또한 한국·조선어를 배우는 일본인이 늘어나서 한국·조선에 대해 논하는 일본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학 작품을 번역·소개하는 데에는 아직 압도적으로 재일조선인이나 일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이 일본어로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후에도 일본에 오랫동안 체재한 김소운(金素雲, 1907~81)은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후였는데, 현지에서 준비한 일본어 번역 원고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現代韓國文學選集』 1~5(冬樹社, 1973~76)를 냈고, 재일조선인 1세의 시인 강순(姜舜, 1918~87)도 스스로의 시 작품으로 일본어 시집을 내는 사이에 김지하, 신경림, 김수영, 양성우, 신동엽, 조태일, 이성부 등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 시집으로 간행했다.<sup>15)</sup> 문학 평론에서는 조총련 계통의 조선대학교의 교원이었던 변재수(卞宰洙)가 『恨と抵抗：金芝河と南朝鮮の詩人たち』(創樹社, 1981), 『南朝鮮文學点描：統一をうたう詩人たち』(朝鮮青年社, 1990), 『南朝鮮の詩人群像：民主・統一の証言』(三一書房, 1996) 등을, 그리고 일본의 중앙대 등에서 교편을 잡은 김학현(金學鉉)이 『荒野に呼ぶ声：恨と抵抗に生きる韓國詩人群像』(柘植書房, 1980), 『第三世界と民衆文學：韓國文學の思想』(社會評論社, 1981), 『民族・生・文學：朝鮮文化論序說』(柘植書房, 1989) 등을 간행했고 宋敏鎬『朝鮮の抵抗文學：冬の時代の証言』(柘植書房, 1977)을 번역했다. 또한 백낙청의 『韓國民衆文學論：白樂晴評論集』(安宇植訳, 三一書房, 1982)이나 『民族文化運動の狀況と論理』(滝沢秀樹監訳, 御茶ノ水書房, 1985), 『知恵の時代のために：現代韓國から』(李順愛・徐京植訳,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1991)

15) 강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宋惠媛, 「在日朝鮮人詩人姜舜論：その生涯と詩作をめぐって」, 『朝鮮學報』 219輯, 2011년 4월.

도 번역·간행되었다. 문학사에서는 앞에서 나온 김우종의 문학사 이외에 金思燁·趙演鉉, 『朝鮮文學史』(北望社, 1971)나 金思燁, 『朝鮮文學史』(金沢文庫, 1973), 金東旭, 『朝鮮文學史』(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등은 저자 본인이 일본어로 직접 집필·간행하고 張德順(姜漢永·油谷幸利訳), 『韓國古典文學入門』(國書刊行會, 1982) 등은 번역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金台俊(安宇植訳), 『朝鮮小說史』(平凡社(東洋文庫), 1975)와 같은 일제시대에 간행된 문학사의 번역물도 나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에서 뉴웨이브 한국론의 필자들이 등장했다. 요모타 이누히코(四方田犬彦, 1953~), 세키카와 나츠오(関川夏央, 1949~), 카와무라 미나토(川村湊, 1951~) 등, 모두 한국 현지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다. 그중 가와무라 미나토는 스스로가 일본문학 연구자이자 문학평론가로, 한국 문학에 관한 논고도 다수 남겼다. 홋카이도 아바시리에서 태어난 카와무라는 1974년 호세이대 법학부를 졸업, 1980년 일본의 군상(群像) 신인문학상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평론활동을 시작했는데, 1982년 한국에 건너가 부산 동아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1990년부터 모교인 호세이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2017년 퇴임) 방대한 저서를 남겼고 한국·조선에 관한 단독 저서만으로 20 권 정도 있는데, 그 중 식민지 조선의 경성 문단을 조명한 『酔いどれ船』の青春：もう一つの戦中・戦後』(講談社, 1986)와 임화, 김문집 등에 초점을 맞춘 논고를 포함한 『滿洲崩壊：「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文藝春秋, 1997), 재일조선인문학의 외연을 확장한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在日朝鮮人文學論』(平凡社, 1999) 등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도 잘 참조되는 저작들이다.

또한 가와무라 미나토는 1990년대에 대학 동료이자 평론가인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나 작가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츠시마 유코(津島佑子)나 나카자와 케이(中沢けい), 한국문학연구자이자 번역가인 안우식(安宇植) 등과 함께 日韓文學フォーラム(한국명 ‘한일작가회의’)를 통해 한국의 문학자들과 교류했다. 일본측에서는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를 통해 작가들이 모였고, 한국 측에서는 처음에는 문학과지성사가, 그 후에 창작과비평사와 문

학동네의 문학자들이 모였다. 1992년부터 97년까지 네 번 개최되는 사이에 서로의 작품들이 번역되고 읽고 논의되었고 번역된 작품들이 간행되기도 했다. 여기서 말 그대로 번역 작업부터 교류 사업까지 가교 역할을 한 실무자였던 것이 안우식(1932~2010)이다. 그는 도쿄 출생으로 1960년대 조총련 문화단체에 속하면서 앞의 黄健, 『ケマ高原』 등을 번역했다. 또한 그 무렵 마츠모토 세이쵸가 『北の詩人』(1964)을 구상할 때 북한 측 재판 자료 등을 마츠모토에 제공한 것도 안우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 조직을 떠나, 그 무렵에 金史良, 『鴛馬萬里：抗日中国紀行』(朝日新聞社, 1972)를 번역·간행하거나, 스스로 『金史良：その抵抗の生涯』(岩波書店(文庫), 1972)나 『評伝金史良』(草風館, 1983)) 등 김사량의 평전을 집필·간행했다. 그 후 장준하나 윤홍길, 백낙청, 박경리, 박범신, 한승원, 이태, 이문열 등 한국의 현대작가부터 한용운, 이육사 등 식민지시대 시인의 작품까지 다수 번역·간행했다. 『シックスストーリーズ：現代韓国女性作家短編』(集英社, 2002)이나 『いま、私たちの隣りに誰がいるのか』(作品社, 2007), 신경숙의 『離れ部屋』(集英社, 2005)이나 『母をおねがい』(集英社, 2011) 등은 그의 만년의 한일작가회의에서 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과물이었다.

## 6. 일본 대학의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자들

마지막으로, 4절에서 언급한 오무라 마스오, 사에구사 도시카츠, 초 쇼키치 등의 동세대 또는 그 이후의 세대로, 일본 대학에서 한국·조선의 근현대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경칭과 생년은 생략. 임기제 교원이나 시간강사, 전직도 포함.)

세리카와 테츠요(芦川哲世, 니쇼가쿠사대)는 70년대부터 서울에 유학해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개화기 정치소설과 식민지기 농민문학에 관한 학위논문을 제출했다. 그 후도 수도사범대나 인하대에서 일본어 강사로 지낸 후에 니쇼가쿠사대에 부임했다. 기독교 문학에도 조예가 깊고 黄順元, 『動く城』의

번역도 있다.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규슈산업대)는 80년대부터 서울에 유학해서 동국대 대학원에서 장혁주론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大学教育出版, 1995)이나 『朝鮮近代の知日派作家, 苦闘の軌跡: 廉想涉, 張赫宙とその文学』(勉誠出版, 2008), 편저로 『張赫宙日本語作品選』(南富嶺と共編 / 勉誠出版, 2003)나 『張赫宙日本語文学選集: 仁王洞時代』(南富嶺과 공편, 勉誠出版, 2022), 번역으로 廉想涉, 『万歳前』 『三代』 『驟雨』나 黄順元, 『木々, 坂に立つ』 등이 있다. 또한 유학시절 세리카와 테츠세 등과 가던 문인 방문 기록을 최근에 정리해서 간행했다.

시라카와 하루코(白川春子, 시모노세키시립대)도 남편인 유타카와 같은 시기에 연세대 대학원에 수학했다. 이광수와 유진오에 관한 연구가 있다.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와세다대)는 서울대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으로 일제말기 일본어 문학에 대해서 박사논문으로 해방후 북한문단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연구했다. 오무라 마스오와 함께 식민지시대 문학자의 일본어 작품에 관한 서지나 영인본을 편집해서 간행한 것은 지금도 이 분야 연구의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번역에 蔡萬植, 『太平天下』(공역)도 있다.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 니가타현립대)는 아오야마학원대 졸업. 프랑스 유학 경험도 있다. 도쿄외대 대학원에서 사에구사 도시카즈나 초 쇼키치의 지도도 받았다. 저서로 『李光洙『無情』の研究: 韓国啓蒙文学の光と影』(白帝社, 2008), 『韓国近代作家たちの日本留学』(白帝社, 2013), 『韓国近代文学研究: 李光洙・洪命憲・金東仁』(白帝社, 2013), 『李光洙: 韓国近代文学の祖と「親日」の烙印』(中央公論新社(新書), 2015)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 李光洙, 『無情』(平凡社, 2005 / 平凡社ライブラリー, 2020)이나 『金東仁作品集』(平凡社, 2011) 등이 있다. 이광수 연구의 네트워크로 북미에 거주하는 이광수의 자녀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그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하거나 함께 한국의 춘원학회에 참가하기도 한다.

조선대학교에서도 문학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학렬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연구』(1996)로 김일성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학렬의 장서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기증됐다.) 오향숙은 강경애 연구를, 손 지원은 문예동 연구, 특히 『鶏は鳴かすにはいられない: 許南麒物語』(朝鮮青年社, 1993) 등 허남기에 관한 연구가 있다.



사노 마사토(佐野正人, 도호쿠대)는 도호쿠대 대학원 졸업. 전공은 비교문학으로 한국·전남대 등에서 가르친 적도 있다. 편저에 『思想・文化空間としての日韓関係: 東アジアの中で考える』(明石書店, 2021), 번역으로 『鄭芝溶詩選』(공역 花神社, 2002), 그 밖에 이광수나 이상 등 식민지 조선문학에 관한 연구도 있다.

아오야기 유코(青柳優子, 전남대 등)는 인하대 대학원 졸업. 저서의 『韓國女性文學研究』(御茶の水書房, 1997) 외에 최원식, 황석영, 고은, 김기림, 백석, 김승옥 등의 작품 번역이 있다.

야마다 요시코(山田佳子, 니가타현립대)는 연세대 대학원 수학. 박화성, 최정희, 한무숙 등 식민지기 여성문학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박태원 등의 작품 번역이 있다.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한국·가야대 등) 천리대 졸업. 연세대 국문과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 국문과에서 「李人植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인직 연구에서는 새 자료를 발굴하는 등 치밀한 연구를 했다. 저서로 『李人植研究』(국학자료원, 2006), 번역서로 『韓國近現代文學事典』(權寧珉編著, 明石書店, 2012) 등이 있다.

쿠마키 츠토무(熊木勉, 천리대)는 숭실대 대학원 졸업. 윤동주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후쿠오카대를 거쳐 현직. 김경린, 오장환, 조항, 이태준에 관한 연구와 채만식, 이태준의 작품 번역이 있다. 같은 대학에 사무국이 있는 조선학회 문학분야 간사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후지이시 다카요(藤石貴代, 니가타대)는 규슈대 대학원 수료. 서울대 대학원 수학. 『金鍾漢全集』(共編 / 綠蔭書房, 2005) 외에 김남천, 김소운, 김시중, 則武三雄, 槇村浩에 관한 연구가 있다.

와타나베 나오키(渡辺直紀, 무사시대)는 동국대 대학원 졸업. 고려대를 거

쳐 현직. 저서로 『임화 문학 비평 :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식민지적 주체』(소명출판, 2018)이 있으며, 연구에 이광수, 임화, 이양지 외에, 이향란과 이마 이 다다시/최인규의 영화론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 김지하, 박완서, 배수아, 박민규, 정미경 등의 작품과 김명인, 김철, 정종현, 김효순의 저서의 번역이 있다. 2005년부터 도쿄에서 인문평론연구회를 주관하면서 하타노 세츠코 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잡지 유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 해에 여러 차례 관계자들의 발표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요시카와 나기(吉川凧)(사나다 히로코(真田博子))(릿쿄대 등)은 인하대 대학원 졸업. 저서로 『朝鮮最初のモダニスト鄭芝溶』(土曜美術社出版販売, 2007)이나 『京城のダダ, 東京のダダ : 高漢容と仲間たち』(平凡社, 2014)가 있으며, 번역으로 정지용, 최인훈, 이청준, 박경리, 신경림, 이창동, 도종환, 최윤, 강영숙, 정세란, 김영하, 최은영, 백수린 등 다수의 작가·시인의 작품 번역이 있다.

와다 도모미(和田とも美, 도야마대)는 서울대 대학원 수료. 저서로 『李光洙長篇小説研究 : 植民地における民族の再生と文学』(御茶の水書房, 2012)이 있으며, 연구로 이태준, 김남천, 손창섭에 관한 논문들과 번역으로 탈북작가나 북한 작가(백남룡)의 작품 번역이 있다.



심원섭(沈元燮, dots고대)는 연세대 대학원 졸업. 와세다대에서도 오랫동안 객원교수를 지냈다. 연구에 『한일문학의 관계론적 연구』(국학자료원, 1998)와 『일본 유학생 문인들의 대정·소화 체험』(소명출판, 2009)이 있으며, 공편에 『운동주 자필시고 전집 : 사진판』(민음사, 1999)이, 번역으로 오무라 마스오나 사에구사 도시카츠, 안우식 등의 연구를 한국어로 옮긴 것 등이 있다.

김응교(金應敎, 숙명여대)는 연세대 대학원 졸업. 와세다대에서도 오랫동안 객원교수를 지냈다. 학위논문에서는 신동엽과 박두진을 연구했다. 저서로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박이정, 2004)와 『이찬과 한국근대문학』(소명출판, 2007), 『韓國現代詩の魅惑』(新幹社, 2007), 『처림 : 시로 만나는 운동주』(문학동네, 2016) 등이 있으며,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있다.

신명직(申明直, 구마모토학원대)은 연세대 대학원 졸업.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낸 저서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만문만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현실문화연구, 2003)은 일본에서도 『幻想と絶望: 漫文漫画で読み解く日本統治時代の京城』(岸井紀子·古田富建訳 / 東洋経済新報社, 2005)로 간행되었다. 편저에 『東アジア市民社会を志向する韓国』(風響社, 2019), 연구에 조세희나 박범신 작품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최태원(崔泰源, 센슈대)은 서울대 대학원 졸업. 와세다대와 도쿄외대, 도쿄대에서도 오랫동안 객원교수를 지냈다. 이인직과 조중환 등 조선의 개화기 문학에 관한 연구로 학위논문을 냈다. 연구로는 진학문, 염상섭, 이야기책/딱지본, 변안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배상미(裴相美, 와세다대 등)는 고려대 대학원 졸업. 독일에서도 객원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혁명적 여성들: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젠더, 노동, 섹슈얼리티』(소명출판, 2019)이 있으며, 여성 노동자나 성노동과 문학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정백수(鄭百秀, 오비린대)는 도쿄대 대학원 졸업. 저서로 『한국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문학』(아세아문화사, 2000), 『コロニアリズムの超克: 韓国近代文化における脱植民地化への道程』(草風館, 2007), 『日韓近代文学の交差と断絶: 二項対立に抗して』(明石書店, 2013), 『「あいだ」の日韓文学: 自国中心主義の地平を超えて』(桜美林大学出版会, 2022) 등이 있으며, 이광수, 최인훈, 김달수, 김사랑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남부진(南富鎭, 시즈오카대)은 츠클바대 대학원 졸업. 저서로 『近代文学の「朝鮮」体験』(勉誠出版, 2001),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勉誠出版, 2002), 『文学の植民地主義: 近代朝鮮の風景と記憶』(世界思想社, 2006), 『翻訳の文学: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の領域』(世界思想社, 2011) 등이 있으며, 연구와 해제로 장혁주의 일본어소설 등에 관한 것이 있다.

이수경(李修京, 도쿄학예대)은 리츠메이칸대 대학원 졸업. 저서로 『近代韓国の知識人と国際平和運動: 金基鎭, 小牧近江, そしてアンリ・バルビュス』(明



石書店, 2003)나 『帝国の狭間に生きた日韓文学者』(緑蔭書房, 2005) 등이 있으며, 제일 코리아나 다문화 공생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고영란(高榮蘭, 니혼대)은 니혼대 대학원 졸업. 저서로 『「戦後」というイデオロギー：歴史/記憶/文化』(藤原書店, 2010)이 있으며, 검열, 출판, 베트남 전쟁, 조선 전쟁과 문학의 관련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조은미(曹恩美, 도쿄외대 등)는 도쿄외대 대학원 졸업. 도쿄외대에 제출한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張赫宙の日本語文学：植民地朝鮮/帝国日本のほぎまで』(明石書店, 2021)를 간행했다.

김도란(金杜蘭, 와세다대 등)은 츠쿠바대 대학원 졸업. 「「われわれ」のアイランド：日本と植民地朝鮮におけるアイランド文学の〈移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일랜드 문학과 일본·한국문학, 연극에 관한 연구가 있다.

류충희(柳忠熙, 후쿠오카대)는 도쿄대 대학원 졸업.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朝鮮の近代と尹致昊：東アジアの知識人エトスの変容と啓蒙のエクリチュール』(東京大学出版会, 2018)를 냈다. 최남선, 이광수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민동엽(閔東曄, 도호쿠학원대 등)은 도쿄대 대학원 졸업. 「錯綜する帝国/植民地の〈知〉：1930~40年代, 植民地朝鮮と「近代の超克」」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에 신남철, 김남천, 박치우, 김달수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김경채(金景彩, 게이오대 등)는 도쿄대 대학원 수료. 현재 해방후 한국 문예비평에 대한 박사논문을 집필중. 김동리, 최재서, 김기진, 임화, 김현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리켄지(李建志, 간세이학원대)는 도쿄대 대학원 졸업. 저서로 『朝鮮近代文学とナショナリズム：「抵抗のナショナリズム」批判』(作品社, 2007), 『日韓ナショナリズムの解体：「複数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生きる思想』(筑摩書房, 2008), 『李氏朝鮮最後の王：李垠』1-3(作品社, 2022) 등이 있으며, 연구에 火野葦平, 김내성, 허준, 이인직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최진석(崔真碩, 히로시마대)는 도쿄대 대학원 졸업. 연세대 대학원에도 수학했다. 「李箱のモダニズム研究：1936年を中心に」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

구에 横光利一나 牧野信一에 관한 것들이 있으며, 이상, 김동춘, 양귀자, 김연수의 작품을 번역했다.

송혜원(宋惠媛, 오사카공립대)는 히토즈바시대 대학원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도 수학했다. 저서로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岩波書店, 2014), 『越境の在日朝鮮人作家尹紫遠の日記が伝えること：国籍なき日々の記録から難民の時代の生をたどって』(琥珀書房, 2022) 등이 있으며, 연구로 김석범, 조선인 미군통역, 강영홀에 관한 논문들이, 자료 편찬으로 제일조선인 여성문학에 관한 것들이 다수 있다.



이토 케이(伊藤啓, 오사카 대 등)는 오사카대 대학원 졸업. 「安懷南の1930年代小説に関する研究：知識人男性主人公の性格と恋愛を中心に」(2015)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다나카 미카(田中美佳, 가코시마국제대)는 규슈대 대학원 졸업. 규슈대에 제출한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朝鮮出版文化の誕生：新文館・崔南善と近代日本』(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22)을 간행했다.

다카하시 아즈사(高橋梓, 니가타현립대)는 도쿄외대 대학원 졸업. 「金史良の二言語文学研究：植民地期の朝鮮語 / 日本語による創作を中心に」(2019)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이카와 타쿠야(相川拓也, 센슈대 등)는 도쿄대 대학원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에도 수학했고 식민지조선의 모더니즘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朴泰遠を読む：「植民地で生きること」と朝鮮の近代経験』(風響社, 2021)이 있다.

야나가와 요스케(柳川陽介, 사이타마대)는 서울대 대학원 수료. 이태준에 관한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다.

## ■ 참고문헌

-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No.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_\_\_\_\_, 「조선문학을 권함 :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소명출판, 2016~2018)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한국학연구』 No.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_\_\_\_\_, 「헌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Vol.58, 상허학회, 2020.
- \_\_\_\_\_, 「김학철과 윤동주 :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동악어문학』 Vol.88, 동악어문학회, 2022.
- \_\_\_\_\_,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Vol.14 No.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 조은애, 「북한에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출판과 개작에 관한 연구 : 김달수와 이은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no.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no.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梶井陟, 「朝鮮文学翻訳の足跡」, 『季刊三千里』 1980.5~1983.5.
- 高榮蘭, 「出版帝国の「戦争」 : 一九三〇年前後の改造社と山本実彦『満・鮮』から」, 『文学』 11(2), 岩波書店, 2010.
- 孫志遠, 『鶏は鳴かすにはいられない : 許南麒物語』, 朝鮮青年社, 1993.
- 宋惠媛, 「在日朝鮮人詩人姜舜論 : その生涯と詩作をめぐって」, 『朝鮮学報』 219輯, 2011年4月.
- 関東嘩, 「在日朝鮮人作家・金達寿と「解放」 : 日本語雑誌『民主朝鮮』を中心に」, 『アジア地域文化研究』 11,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養学部アジア地域文化研究会, 2015.3.

## 日本における韓国近現代文学研究の地平と歴史

渡辺直紀\*

本稿では日本における韓国近現代文学研究の歴史を概観する。韓国の近現代文学知識制度は歴史的構成物と言えるが、特に日本での場合はさらにそのような性格が強かったといえる。この論文では、日本でそのような自明な制度では存在しなかったものの、それでもその研究の領域を作ってきた人々、著書、集まり、制度などを最大限にまとめ、日本での韓国文学研究の歴史を検討する。

[キーワード] 韓国文学研究史, 文学翻訳, 帝国/植民地/南北分断と文学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3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4일

---

\* 武蔵大学人文学部教授. 主著に『林和文学批評』, ソミョン出版, 2018など